

기출의 수[秀]법

2025_06 윤리와 사상

분석서 구성

- 용어 정리

*사상적 입장: 해당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

*공통적 입장: 둘 이상의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입장

*차별적 입장: 한 사상가는 동의, 나머지 사상가는 비동의할 입장

[Comment] 주요 사상가 정보, 선지에서 봐야 할 포인트 혹은 해야 했던 생각, 필자가 생각하는 난이도.

[정답 선지] 이 선지가 정답인 이유.

[오답 선지] 이 선지가 오답인 이유, 당연히 오답인 선지는 설명을 생략함.

[Tips] 해당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하면 좋은’ 생각.

(정답률 출처: 메가스터디)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한다.
- ②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
- ③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 ④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한다.

3.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읊은 것은?

갑: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무욕(無欲)
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을: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먼저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 준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는 인(仁)을 행하는 방법이다.

- ① 갑: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 ② 갑: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 ③ 을: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 ④ 을: 군주는 재화 분배의 형평보다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란 국가든 어떤 종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것의
종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인간의 종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종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인간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 ② 인간의 종 중 자족적 종이자 완전한 종은 행복뿐이다.
- ③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 ④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알이다.
- ⑤ 개인의 최고의 종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2.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
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
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을: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전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 ① 갑: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 정의는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 ③ 을: 용기는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 ④ 을: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5.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사람은 본래 반야(般若)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므로 고승(高僧)의 인도로써 마음의
실상을 몸소 깨달아야 한다.
○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 ①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淨土)는 내 마음에 있다.
- ②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 ③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 ④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 ⑤ 경전 공부를 위주로 선(禪)을 병행해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면서 모두 의로움보다 이로움만 찾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p> <p>을: 요임금과 우임금은 본성을 고치고 수양한 후 성인의 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본래 소인이라 군자가 권세로 통솔하지 않으면 소인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으니 그들이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별 레)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 보 기 >

- ㄱ. A: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나는가?
 ㄴ. B: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
 ㄷ. C: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ㄹ. C: 인(仁)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p> <p>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별 레)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보 기 >

-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랑하는 ○○에게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했던 사람도 현재 타락하거나 선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던 사람도 현재 선해지기 시작한다면 선한 사람이다.

- ① 행복의 실현 여부가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 가치 기준이다.
 ②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도 상황에 따라 가치를 상실한다.
 ③ 문제 해결을 위한 감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 수 없다.
 ④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속적 성품에 근거한다.
 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을: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원리 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게 된다.

- ① 갑: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
 ② 갑: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③ 을: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④ 을: 삶의 궁극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재에서 완성될 수 있다.

10.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효도와 공경을 행했을 때에 비로소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효도와 공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알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하겠는가?

을: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을 탐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있으나 사람이 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 ① 사람의 마음에 천리(天理)가 존재하는가?
 ②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하는가?
 ③ 소인은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가?
 ④ 육구의 절제와 본성의 보존은 격물(格物)과 무관한 것인가?
 ⑤ 치지(致知)는 사물에 갖든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1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밝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보 기>

ㄱ.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체적 이치이다.
 ㄴ. 사람은 이법적(理法的)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ㄷ. 인간은 선을 택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
 ㄹ. 예(禮)라는 성(性)은 사양지심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흐름은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을: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① 갑: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
 ② 갑: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 데 이성은 무능력하다.
 ③ 을: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④ 을: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지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아니다.
 ⑤ 갑과 을: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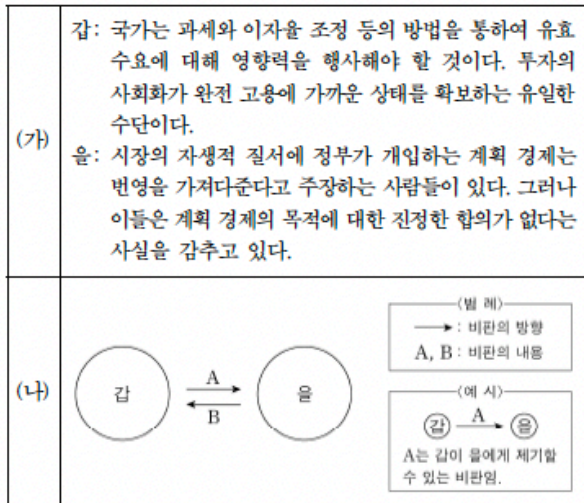
13.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님이 감응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守心正氣]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님이 반드시 즐거워한다.

을: 강화(講和)가 성립되면 사교(邪敎)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은 금수가 될 것이다.

- ① 갑: 천인합일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② 갑: 새로운 세상이 내세(來世)에 열린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③ 을: 절의(節義)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 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④ 을: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문명(器)은 받아들여야 한다.
 ⑤ 갑과 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A: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③ B: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④ B: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⑤ B: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15.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을: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네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이다.

<보 기>

ㄱ. 갑: 신과 운명에 대한 순응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ㄴ. 갑: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한다.
 ㄷ. 을: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난다.
 ㄹ. 갑과 을: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하나는 기(氣)가 주가 되고 하나는 이(理)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도 기가 없지 않지만 이의 발(發)이라 하고, 칠정에도 이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이라 합니다.

을: 기가 유행하면서 그 본연을 잃고 치우치거나 혼탁한 것은 기의 국한되고, 기의 맑음과 혼탁함 가운데서도 그 본연이 손상되지 않음은 이의 통합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①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거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
- ②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 ③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 ④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 ① 갑: 생산이 풍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검소하게 살아간다.
- ② 갑: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 ③ 을: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 ④ 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1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을: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갑: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 ㄴ.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 ㄷ. 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어떤 정부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세 가지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사상과 의견과 감정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선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개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뜻을 같이하는 타인들과 함께 화합할 연대의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 ①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 ② 개인적 삶의 기호는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③ 개인의 자유는 민주 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④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다.
- ⑤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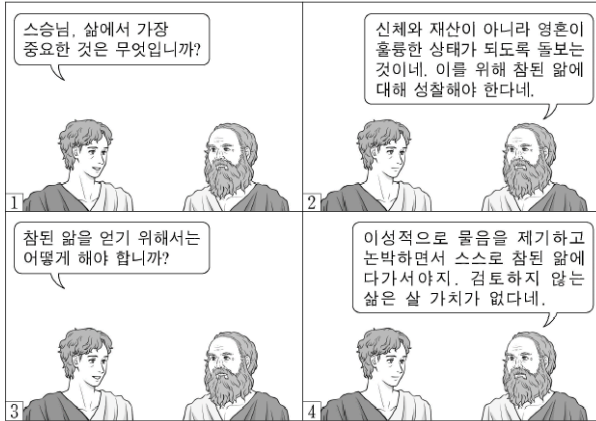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빠른 정답

#	정답	출제 포인트	정답률
1	4	고대 그리스_소크라테스	93%
2	4	고대 그리스_소피스트, 플라톤	80%
3	5	혼합_노자, 공자	68%
4	2	고대 그리스_아리스토텔레스	63%
5	1	불교_혜능	70%
6	4	유교_맹자, 순자	54%
7	3	공리주의_벤담, 밀	31%
8	2	실용주의_듀이	54%
9	2	중세_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43%
10	1	유교_왕수인, 주희	74%
11	3	유교_정약용	44%
12	3	혼합_흠, 칸트	58%
13	5	근대 한국_동학, 위정척사파	72%
14	1	자본주의_케인스, 하이에크	83%
15	4	고대_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	71%
16	3	유교_이황, 이이	69%
17	3	합리주의_스피노자	55%
18	5	이상 사회_모어, 마르크스	66%
19	4	국가론_홉스, 로크	44%
20	1	민주주의_밀	88%

#고대_소크라테스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한다.
- ②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
- ③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 ④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한다.

[Comment] 고대 그리스 사상가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이상적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는 4번 선지를 무난히 고르면 되는 문제였다.

[정답 선지]

④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최고선은 지혜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

#고대_소피스트, 플라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을: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전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 ① 갑: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 ③ 을: 용기는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 ④ 을: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Comment] 고대 그리스 사상가 소피스트(갑,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과 선지에서 모두 두 사상가의 정의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고,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통치자의 이익’이라는 입장, 플라톤의 국가 3계급설을 잘 이해해야 했다.

[정답 선지]

④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소피스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트라시마코스는 법은 피치자의 이익이 아닌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② 소피스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통치자 계층의 사익이라고 보았다.
- ③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플라톤은 용기가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것이 아닌, 이성의 지시를 잘 따름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라고 보았다.
- ⑤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

1 소피스트의 사상적 입장은 맞다. 소피스트는 정의는 통치자의 이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누군지에 따라 국가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혼합_노자, 공자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무욕(無欲)
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을: 어린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먼저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 준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는 인(仁)을 행하는 방법이다.

- ① 갑: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 ② 갑: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 ③ 을: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 ④ 을: 군주는 재화 분배의 형평보다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한다.

[Comment] 도가 사상가인 노자(갑)와 유교 사상가인 공자(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선지에서 두 사상가의 정치 사상과 이상적 삶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3번 선지를 제외하면 오답 선지가 명확했고, 3번 선지 또한 ‘정명’을 뜻한다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답 선지]

⑤ 노자와 공자의 공통적 입장이다. 물론, 여기서 ‘덕’이란 노자는 자연적 본성에 따른 덕을, 공자는 인과 예와 같은 덕을 말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오답 선지]

- ①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자는 만물의 근원이 ‘도’라고 보았다.
- ②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자는 도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가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③ 공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정명’ 사상으로, ‘인’의 관점에서 ‘서’와 상충하지 않는다.
- ④ 공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공자는 군주가 재화의 부족보다 재화가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²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³

² 4번 선지가 ‘재화 분배의 형평’과 ‘재화의 부족’ 간 선후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³ 2번 선지가 ‘인간’과 ‘모든 존재’ 간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고대_아리스토텔레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것의 좋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인간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 ②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은 행복뿐이다.
- ③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 ④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앎이다.
- ⑤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Comment] 고대 그리스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선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행복에 대한 입장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4번 선지가 평가원이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를 낼 때 파는 전형적인 함정이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답 선지]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 중 가장 자족적이며 완전한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악행의 원인은 무지와 자제력 없음이 있다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품성적 덕은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의 구체적 내용이 중용이고,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하는 앎은 ‘지성적 덕’ 중 실천적 지혜라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최고선과 국가의 최고선이 행복으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⁴

⁴ 1번 선지, 3번 선지가 각각 ‘자제력 없음’과 ‘모든 악행의 원인’, ‘품성적 덕’과 ‘모든 덕’ 간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불교_혜능

5.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사람은 본래 반야(般若)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므로 고승(高僧)의 인도로써 마음의 실상을 몸소 깨달아야 한다.
-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 ①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淨土)는 내 마음에 있다.
- ②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 ③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 ④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 ⑤ 경전 공부를 위주로 선(禪)을 병행해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Comment] 불교(특히 선종) 사상가 혜능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선지가 꽤 낯설 수도 있지만 혜능의 ‘돈오돈수’를 이해했다면 오답 선지가 매우 명확했을 것이므로 무난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답 선지]

① 혜능의 사상적 입장이다. 혜능은 누구나 마음에 있는 부처가 될 가능성인 자성(불성)을 직관하면 단번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

#유교_맹자, 순자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면서 모두 의로움보다 이로움만 찾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p> <p>을: 요임금과 우임금은 본성을 고치고 수양한 후 성인의 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본래 소인이라 군자가 권세로 통솔하지 않으면 소인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으니 그들이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보 기>

ㄱ. A: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나는가?
 ㄴ. B: 의로움의 추구하고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
 ㄷ. C: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ㄹ. C: 인(仁)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Comment] 유교 사상가 맹자(갑)와 순자(을)의 사상적 입장과 차별적 입장을 묻는 순서도 유형의 문제이다. ㄹ 선지가 다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순자도 맹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이고, ‘인’을 기본 덕목으로 보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했었다.

[정답 선지]

- ㄱ. 맹자의 순자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다. 맹자는 순자와 달리 모든 인간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도덕적 본성을 가졌다고 보았다.
- ㄷ. 순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순자는 ‘제도적 규범’인 ‘예’에서 도덕이 성립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순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순자는 군주가 ‘인’의 도덕적인 기본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ㄴ. 맹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맹자는 이로움의 추구보다 의로움의 추구가 먼저지만 항상 둘이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Tips] 순서도

순서도 유형은 ‘**화살표가 갈라지는**’ **팩트에 해당하는 선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갑은 ‘예’, 을은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은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입장**으로, 두 사상가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단, 3명의 사상가가 나올 경우에는 화살표가 닿는 두 사상가만 먼저 판독해야 한다.

#공리주의_벤담, 밀

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p> <p>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p>
(나)	

<보 기>

<p>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p> <p>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p> <p>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p> <p>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밀의 차별적 입장과 공통적 입장을 묻는 밴다이어그램 유형의 문제이다. 6월 모의평가 오답률 1위의 문제였으며, 선지 내 개념의 포함 관계를 지독하게 건드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답 선지]

ㄴ. 벤담과 밀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공리주의 사상가로, 좋은 목적(결과)이 있다면 나쁜 수단(의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벤담과 밀의 공통적 입장이다. 벤담은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 밀은 질적으로 고급인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좋은 가치를 지녔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ㄱ. 벤담과 밀의 공통적 입장이다. 벤담 뿐만 아니라 밀 또한 쾌락 양의 증가를 통해 행복이 증진될 수는 있다고 보았다.

ㄹ. 밀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밀은 저급한 쾌락도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라면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Tips] 밴다이어그램

밴다이어그램 문제에서 **교집합 부분은 공통적 입장, 나머지 부분은 차별적 입장에** 해당한다. 단일한 사상가의 사상적 입장을 묻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모든 사상가가 해당 선지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A의 B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 답일 때)

1.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2.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3.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실용주의_듀이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랑하는 ○○에게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했던 사람도 현재 타락하거나 선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지했던 사람도 현재 선해지기 시작한다면 선한 사람이라 한다.

- ① 행복의 실현 여부가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 가치 기준이다.
- ②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도 상황에 따라 가치를 상실한다.
-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 수 없다.
- ④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속적 성품에 근거한다.
- 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

[Comment]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이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지만, 실용주의의 기본 도식을 기반으로 오답 선지를 소거해 나갈 수 있었다.

[정답 선지]

② 듀이의 사상적 입장이다. 듀이는 도덕 규칙은 유용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 가치가 고정된 도덕 규칙은 없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① 듀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듀이는 고정된 행동 목적이나 가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듀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듀이는 잠정적 가설이 지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다고 보았다.

④ 듀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듀이는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실제적 유용성에 있다고 보았다.

⑤ 듀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듀이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가 수정되고 진보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Tips] 실존주의/실용주의의 기본 도식

현대 서양 사상인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는 지식 또는 도덕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그것의 특수성, 가변성을 긍정**한다. 실존주의 또는 실용주의를 다루는 문제의 선지에서 보편성의 의미를 띠는 표현이 있다면 유심히 판단하자.

#중세_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9. 중세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을: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원리 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게 된다.

- ① 갑: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
- ② 갑: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 ③ 을: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 ④ 을: 삶의 궁극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 ⑤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다.

[Comment] 중세 사상이자 아우구스티누스(갑)와 아퀴나스(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3번 선지를 고른 비율이 39%이나 되는데, ‘모든 피조물’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아퀴나스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선지]

②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가 없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발생한 선의 부재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하여 인격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영원법이며,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 ④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퀴나스는 삶의 궁극 목적이 신과의 합일에 의한 행복이라고 보았다.
-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두 사상이자 모두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⁵

⁵ 꽤 많은 비율이 선택한 3번 선지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 간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유교_왕수인, 주희

10.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효도와 공경을 행했을 때에 비로소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효도와 공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앎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하겠는가?

을: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을 탐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있으나 사람이 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앎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 ① 사람의 마음에 천리(天理)가 존재하는가?
- ②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하는가?
- ③ 소인은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가?
- ④ 욕구의 절제와 본성의 보존은 격물(格物)과 무관한 것인가?
- ⑤ 치지(致知)는 사물에 갖든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Comment] 양명학 사상가 왕수인(갑)과 성리학 사상가 주희(을)의 공통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왕수인과 주희의 앎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기출의 전형적인 '주희-왕수인' 문제보다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그렇다 해도 기출에 자주 나왔던 '주희-왕수인'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잘 건드린 문제였다.

[정답 선지]

① 왕수인과 주희의 공통적 입장이다. 왕수인은 사람의 마음이 즉 본성이자 천리라고 보았고, 주희는 사람의 마음에 천리인 본성이 있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②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왕수인은 사람의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 ③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두 사상가 모두 군자와 소인에게 도덕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④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두 사상가 모두 욕구의 절제와 본성의 보존, 즉 '존천리 거인욕'이 '격물'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 ⑤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왕수인은 '치지'가 마음 안의 양지를 극진히 하는 '치양지'라고 보았다.

[Tips] 주희-왕수인의 출제 포인트

기출에 자주 출제된 주희와 왕수인이 출제되는 문제의 제시문 또는 선지의 출제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1. '천리'에 대한 입장
- 2. '지'와 '행'에 대한 입장
- 3. '격물치지'에 대한 입장

#유교_정약용

1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밝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보 기>—

ㄱ.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체적 이치이다.
ㄴ. 사람은 이법적(理法的)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ㄷ. 인간은 선을 택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
ㄹ. 예(禮)라는 성(性)은 사양지심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실학 사상가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2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31%인데, 정약용이 본성을 ‘이치’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ㄱ 선지를 지울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3번 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했고,⁶ 정답 선지는 모두 ‘자주지권’ 개념을 차용했다.

[정답 선지]

- ㄴ.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이법적 실체가 아니나 영지의 기호와 자주지권을 통해 덕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다. 정약용은 선을 선택해 실천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ㄱ.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 중 하나인 영지의 기호는 실제적 이치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ㄹ.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정약용은 사덕 중 하나인 ‘예’는 사양지심을 발휘해 형성되는 덕이라고 보았다.

⁶ 사실 ㄱ, ㄴ, ㄷ과 ㄴ, ㄷ이 같이 있었다면 정답률은 더 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정답률에 비해 난이도는 낮았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혼합_흙, 칸트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을: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① 갑: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
- ② 갑: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 데 이성은 무능력하다.
- ③ 을: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 ④ 을: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지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아니다.
- ⑤ 갑과 을: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Comment] 경험주의 사상가 흄(갑)과 의무론 사상가 칸트(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감정이 도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이것이 흄과 칸트가 주로 엮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선지]

③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다. 칸트는 이성에 기반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인간의 자율성이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흄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흄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이라도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얻는다면 선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흄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흄은 이성이 정념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정념의 역할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선의지가 그 자체로 선한 유일한 것이라 보았으므로, 조건 없이 선하다고 보았다.
- ⑤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가 보편적 인류애가 아닌 인간의 이성이라고 보았다.

[Tips] 칸트의 출제 포인트

수능 윤리의 대부, 칸트가 윤리와 사상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1.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입장
- 2. 준칙과 보편적 도덕 법칙의 관계
- 3. 행복과 도덕의 관계

#근대 한국_동학, 위정척사파

13.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님이 감응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守心正氣]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님이 반드시 즐거워한다.

을: 강화(講和)가 성립되면 사교(邪敎)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예의는 사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은 금수가 될 것이다.

- ① 갑: 천인합일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새로운 세상이 내세(來世)에 열린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 ③ 을: 절의(節義)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 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 ④ 을: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문명[器]은 받아들여야 한다.
- ⑤ 갑과 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Comment] 동학(갑)과 위정척사파(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중요 출제 요소에 밀려 유심히 살펴보지 못하는 주제지만, 그럴 수록 확실하게 정답을 골라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선지]

⑤ 동학과 위정척사파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 모두 반외세 사상을 기반으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동학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동학은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의 천인합일 사상을 수용해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동학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동학은 새로운 세상이 현실 세계에서 열린다고 보았다.⁷
- ③ 위정척사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위정척사파는 유교적 신분 질서를 철폐의 대상이 아닌 보존의 대상으로 보았다.
- ④ 위정척사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위정척사파는 반외세적 성격을 띠며 서양의 종교와 물질 문명 모두를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Tips] 근대 한국 사상의 기본 도식

중요도는 낮지만 항상 한 번씩은 출제되는 근대 한국 사상 중 위정척사파, 동도서기론, 동학의 기본 도식은 다음과 같다.

- 1. 위정척사파: 반외세, 친봉건적 입장
- 2. 동도서기론: 친외세, 친봉건적 입장
- 3. 동학: 반외세, 반봉건적 입장

⁷ 이는 원불교, 증산교 등 근대 한국 종교의 공통적 입장이다.
Made by Geunro

#자본주의_케인스, 하이에크

14. (가)의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국가는 과세와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효 수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p> <p>을: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계획 경제는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획 경제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20px;">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20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 B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div> </div>

- ① A: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② A: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③ B: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 ④ B: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 ⑤ B: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Comment] 자본주의 사상이 케인스(갑, 정확히는 수정 자본주의)와 하이에크(을, 정확히는 신자유주의)의 비판 문제이다. 항상 까다로운 비판 유형이지만 출제 요소 자체는 무난했으며, A는 하이에크에 대한 케인스의 차별적 입장, B는 케인스에 대한 하이에크의 차별적 입장을 고르면 됐다.

[정답 선지]

① 케인스의 하이에크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다. 케인스는 하이에크와 달리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②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③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 ④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는 시장 구성원을 예측시키는 체제라고 보았다.
- ⑤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자유방임주의 체제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Tips] 비판 유형

비판 유형의 취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적 입장 찾기’이다. 비판 유형의 선지는 ‘A는 B가 X를 간과한다고 보았다.’는 형식인데, X는 B에 대한 A의 차별적 입장이 된다. 이때 선지가 오답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X가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2. X가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3. X가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 A가 할 말이 아니다.

#고대_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을: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네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이다.

—<보 기>—

ㄱ. 갑: 신과 운명에 대한 순응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ㄴ. 갑: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한다.
 ㄷ. 을: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난다.
 ㄹ. 갑과 을: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고대 헬레니즘 사상가 에피쿠로스(갑)와 스토아학파(을, 정확히는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 오답 선지가 명확했기에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선지]

ㄴ.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정의가 상대방의 쾌락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맺는 상호 협정이며 고통 제거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ㄹ.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평정심(아타락시아) 또는 부동심(아파테이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ㄱ.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에피쿠로스는 신 또는 운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ㄷ. 스토아학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곧 자연과 인간의 공통 본성인 이성이라고 보았다.

#유교_이황, 이이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하나는 기(氣)가 주가 되고 하나는 이(理)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도 기가 없지 않지만 이의 발(發)이라 하고, 칠정에도 이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이라 합니다.

을: 기가 유행하면서 그 본연을 잃고 치우치거나 혼탁한 것은 기의 국한됨이고, 기의 맑음과 혼탁함 가운데서도 그 본연이 손상되지 않음은 이의 통함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omment] 한국 유교 사상가 이황(갑)에 대한 이이(을)의 차별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기존의 이황과 이이가 나온 문제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며, X, Y, Z축 또한 ‘이’와 ‘기’의 관계,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묻는 전통적인 주제였다.

[정답 선지]

③ 이이는 이황과 달리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X의 정도가 높고, 도덕 본성, 즉 ‘천리’의 능동적 움직임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Y의 정도는 낮다. 또한 이이는 ‘사단’인 수오지심이 ‘기’가 발현된 감정인 ‘칠정’ 중 하나라고 보았기 때문에 Z의 정도가 높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

[Tips] 이황, 이이의 출제 포인트

윤리와 사상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인 이황과 이이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이’와 ‘기’의 관계
2.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
3. ‘사단’과 ‘칠정’의 관계
4. 수양에 대한 입장

#합리주의_스피노자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①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
- ②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 ③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 ④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Comment] 합리주의 사상가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며 정답 선지도 깔끔하게 떨어진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

[정답 선지]

③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자연(또는 신)에 대한 사랑을 실현해야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외적 대상에 대해 이성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정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실체가 아닌 유한한 양태라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세계의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고 자유의지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 1. 단순 부정 표현
-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⁸

⁸ 1번 선지가 '이성을 통한 이해'와 '모든 이해' 간 포함 관계를 건드렸다.

#이상 사회_모어, 마르크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 ① 갑: 생산이 풍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검소하게 살아간다.
- ② 갑: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 ③ 을: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 ④ 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Comment] 사회사상가 모어(갑)와 마르크스(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오답 선지도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게 나왔으며 정답도 깔끔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선지]

⑤ 모어와 마르크스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이상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과 계급이 사라지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모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모어는 이상 사회에서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고 풍요롭다고 보았다.
- ② 모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모어는 이상 사회에서 여가 활동은 노동 이외 시간의 활동이며, 구성원들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최종 단계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라고 보았다.
- ④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가 노동자 계급의 급진적 혁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국가론_홉스, 로크

1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을: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ㄴ.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ㄷ. 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Comment] 사회계약설 사상가 홉스(갑), 로크(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본 시험지의 오답률 1위 문항이었으며, 홉스와 로크의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정답에 결정적인 선지였던 ㄴ 선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⁹

[정답 선지]

- ㄱ. 홉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무제한적인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ㄴ. 홉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홉스는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를 방지하고자 자발적 계약을 통해 주권을 하나의 인격(즉, 리바이어던)으로 양도한다고 보았다.
- ㄹ. 홉스와 로크의 공통적 입장이다. 홉스는 생명권, 로크는 생명권, 재산권 등이 자연 상태에도 개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ㄷ. 로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로크는 배타적 재산권은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Tips] 사회계약설의 기본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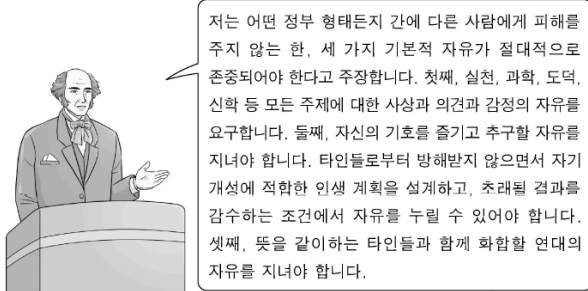
사회계약설 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기본 도식은 다음과 같다.

- 홉스: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
 - > 생명권을 제외한 권리를 하나의 절대 권력에 양도
 - > 전제 군주정
- 로크: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 > 공평한 자연법 집행관이 없음,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
 - > 자연법 집행권 및 입법권을 국가에 신탁
 - > 대의 민주정
- 루소: 평화로운 자연 상태
 - > 사회 상태에서의 사유 재산제로 인한 불평등 출현
 - > 인민을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둠
 - > 직접 민주정

⁹ 사실 ㄹ 선지도 치명적이었지만, (ㄱ, ㄴ) 선지가 없어 (ㄱ, ㄹ) 선지에 28%가 몰렸다.

#민주주의_밀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 ② 개인적 삶의 기호는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③ 개인의 자유는 민주 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④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다.
- ⑤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Comment] 자유주의 사상가이기도 한 밀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만 놓고 봐도 정답 선지를 고를 수 있을 만큼 쉬운 문항이었다.

[정답 선지]

① 밀의 사상적 입장이다. 밀은 개인의 자유와 쾌락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